

국내 닭고기 소비 시장 더욱 확대해야



김관태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지난 10월 23일 3만여명의 전국 축산농가가 여의도에 모였다. FTA 근본대책 수립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이날 축산농가들은 FTA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현재 우리 축산업은 축산 강대국과의 잇단 FTA 체결로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거대 국가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에 타결될 것이란 소식에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국내 닭고기 산업도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초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육수수가 급격히 증가해 생산과잉에 따른 닭고기 가격 하락이 이어졌으며, 닭고기 수입량도 올 상반기까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해 수급 불균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육지책으로 계열업체들이 닭고기 구매·비축에 나서면서 최근엔 닭고기 가격이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이나 비축물량은 시장으로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수입을 포함한 닭고기 공급량이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닭고기 시장이 한정돼 있는 한 언제든 수급 불안이 다시 올 여지가 큰 것이다.

지난해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줄어

이에 생산 분야의 수급조절과 함께 닭고기 소비 시장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1.5kg, 2012년 소비량 11.6kg 보다 0.1kg이 줄었다. 감소폭

이 크진 않다. 하지만 같은 기간 쇠고기는 9.7kg에서 10.3kg으로, 돼지고기는 19.2kg에서 20.9kg으로 소비량이 늘었다. 육류 중 닭고기만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도계수수가 전년보다 4% 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닭고기 최근 수급 문제를 놓고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배어있는 것을 볼 때 소비 시장을 더 늘리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소비 확대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올해 초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끌면서 극중 주인공 천송이(전지현 분)의 대사 '눈 오는 날엔 치맥인데'라는 한 마디에 '치맥(치킨+맥주)'의 인기가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까지 폭발했다. '치맥' 관련 상품의 매출이 급증한 것은 물론 전지현을 광고모델로 하는 한 업체는 우리나라를 찾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종로와 명동에 관련 매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드라마의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한류 붐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치맥'의 파급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100%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송출을 한 SBS 방송국은 돈을 벌지 못했다는 얘기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주)하림과 (주)마니커가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의 물꼬를 터 향후 중국 시장 등으로의 수출확대가 기대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소비 시장이 늘어나야 닭고기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산 닭고기 시장 점유율 높여야

이를 위해선 국내산 닭고기를 활용한 제품 확대와 함께 유통·판매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요구된다. 한 예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국내 한 치킨업체의 가격 인상을 꼬집은 바 있다. 닭고기 도매가격은 전년도보다 18.5%나 하락했고, 최근 5년간 평균 가격보다도 15.5% 하락했음에도 이 업체의 제품가격이 5.9~6.3% 인상됐다는 이유에서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 없이는 닭고기 소비 확대는 어려운 일이다.

국내산을 활용한 닭고기 가공제품도 더 확대돼야 한다. 최근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도종닭협회는 '수입닭고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해 판매가 증가하는 닭가슴살 캔을 살펴보면 수입 닭고기를 주재료로 한 제품이 국내산 닭고기를 100% 사용한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거나 비슷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려나가며,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여름철은 물론 최근까지도 이어지면서 상재화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가축질병 등 외부 변수가 닭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지만 닭고기 소비 시장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닭고기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